



◆ [Focus]

- (CBAM)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 현지반응

◆ [What's News]

- (IRA) 재무부,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건 등 추가 발표 일정 공개
- (232조) 무역대표부, "WTO 판결과 관계없이 주요 산업 보호 지속"
- (예산안) 美 상원, 회계연도 2023 예산안 합의
- (IPEF) 美 하원, IPEF 도입 시 의회 승인 요구에 동참
- (에너지) 美, 전략비축유(SPR) 방출로 40억 달러, 큰 폭의 수입 기록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1. [CBAM]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 관련 현지반응

가. 개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잠정합의안 주요내용

- 대상품목 : 기존 6대 품목(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에 신규로 특정 전구체(응집철광석, 니켈 철 등) 및 다운스트림 제품 추가
 - * EU 집행위는 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환기 종료 전 까지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 다른 탄소누출 위험 품목과 다운스트림 제품 추가 여부 결정 예정
- 시행시기 :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 개시
 - * 당초 개시일(2023년 1월 1일)로부터 연기
 - *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으며, 전환기간 종료 시 인증서 구매 의무 부과
- 탄소배출량 보고범위 : 직접 배출과 특정 요건 하 간접 배출도 포함
- 무상할당* 폐지기간 : 2026년 ~ 2034년, 총 9년 간

(연도별 무상할당 감축 목표) '26년(2.5%), '27년(5%), '28년(10%), '29년(22.5%), '30년(48.5%), '31년(61%), '32년(73.5%), '33년(86%), '34년(100%)

*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배출권을 나누어 주는 것

나. 미국 현지 반응

- EU의 탄소국경조정세 최종 합의에 대해 긍·부정적 평가 혼재
 - (정부) 美 무역 대표(USTR), 미국-EU 간 무역 관계 악화 가능성 우려
 - 美 정부는 EU와 고탄소 중국 철강·알루미늄 제재 공조를 위해, 그간 CBAM 관련 공식적인 지지 또는 반대 표명을 자제해 옴.
 - 이례적으로 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CBAM 도입으로 인해 향후 양국 무역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주시 중”이라고 발언 (12.13)
 - (의회) 일부 의원 간 긍·부정 평가 혼재
 -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상원의원은 “CBAM 취지에 동의하나, 우방국 협력을 통해 親 무역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
 -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은 “국제 친환경 정책에 무임승차 하는 국가와 미국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
 - 셸든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은 “미국은 자체 CBAM 법안*을 검토 중(6.7 발의)”이라며, 차기 의회에서 신속한 입법 촉구
- * Clean Competition Act(CCA) : △화석연료·화학·비료·철강·종이 등 대상, △'24년부터 탄소 가격제 채택(톤당 55달러), △수입품 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 △국내 수출을 위한 환급제 도입, △저개발국 대상 수수료 면제 등 골자

<EU의 CBAM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20개 수출국>



* 한국은 철강 수출이 가장 큰 영향을 볼 것으로 전망

[출처: Knoema·뉴욕 기반 컨설팅 회사]

- (기업) 美 업계 경쟁력 우위 주장. CBAM의 대중 견제 효과는 제한적 전망
 - 엄격한 미국 내 규제로 미국의 철강 생산은 세계 최저 탄소 배출을 자랑한다며, 오히려 美 업계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
 - 케빈 뎀프시(Kevin Dempsey) 美 철강협회 회장은 “CBAM 규제가 일부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제동을 걸 수도 있으나, 결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다른 방식의 접근 주문

다. 주요 EU 수출국 반응

- 주요 수출국은 EU의 CBAM 제도가 가져올 효과에 부정적인 반응
 - (러시아) “수출통제와 러시아의 생산 시설 전환으로 효과 없을 것”
 - 러시아 증권 업체 Finam은 러시아산 철강과 니켈 제품은 대러 제재로 수출이 금지되어있어서 EU의 CBAM 도입이 러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또한 러시아는 알루미늄 생산 시 사용되는 에너지의 90%를 수력발전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CBAM 기준의 탄소 배출량보다 적다고 주장
 - (중국) CBAM은 개도국-선진국 사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
 - 중국 영문 관영 매체 중국일보(China Daily)는 CBAM이 탄소 배출량 감소를 장려할 것이라는 EU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무역 관행 개혁을 통해 환경 보호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12.20)
 - 또한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 CBAM은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비판하며 비선진국 국가들이 불공정 경쟁에 노출될 것이라고 비난

* 자료 : 폴리티코(12.13), E&E Daily(12.14), Knoema(12.14), 기타 언론 및 코트라 무역관 보유 자료

□ **(IRA) 재무부,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건 등 추가 발표 일정 공개**

- 친환경 차량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건 세부규정은 '23년 3월 확정될 전망
 - 최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12.19) 친환경 차량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건의 예상 방향(anticipated direction)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나 실제 지침은 당초보다 지연된 내년 초(~3월 확정) 공개될 예정
 - * 소비자 및 제조업체를 위한 친환경 차량 관련 지침 역시 추가 발표 예정
 - 따라서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건의 보조금 혜택*은 내년 규정이 발표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
 - * EV 차량의 배터리 필수 광물 최소 40%, 배터리 구성요소 50% 충족 시 \$3,750 세액 공제
 -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의 우려 제기로 관련 세부 규정의 발표가 지연되었다고 보도하며 해당 규정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인 미국과 유럽, 아시아 동맹국 간의 높은 이해관계 조명
 - * 지난달 종료된 재무부 공개 의견 수렴기간 동안 EU, 한국, 일본 정부를 포함한 800여개 이상 의견 접수

* 자료 : 재무부(12.19), WSJ(12.20)

□ **(232조) 무역대표부, “WTO 판결과 관계없이 주요 산업 보호 지속”**

-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WTO 패소 판결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WTO가 판단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
 - 미국이 관세 철폐를 거부하면 다른 국가들도 안보 정당성을 활용해 무역 질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외교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 타이 대표는 “미국과 같은 민주 정부의 국가안보 판단을 실제로 책임이 없는 일부 의사 결정자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라고 비판
 - 또한, 타이 대표는 국가안보와 연관된 주요 산업을 보호할 것으로 시사하며, 이후 무역 정책에서도 이번 WTO 판결을 의식하지 않을 것으로 주장
 - 현지 언론은 이번 232조 판정 결과로 인해, WTO 항소기구 복원을 주장해온 일부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

* 자료 : 폴리τικο(12.20)

□ (예산안) 美 상원, 회계연도 2023 예산안에 합의

- 상원, '포괄적인 '23 회계연도 예산안'(Omnibus bill) 합의 (12.20)
 - 상원은 올해 예산 대비 약 10% 증가한 '포괄적인 '2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한 뒤 하원의 최종 가결만을 남겨 놓은 상태
 - * 12.23까지 하원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연방 정부 셋 다운이 예정
 - 1조 7,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23 NDAA)에 포함되지 않은 군 관련 지출을 위해 8,580억 달러, △국내 프로그램 지원에 7,720억 달러 등을 포함
 - * IRA나 반도체 법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부서별 예산 집행 설명
 - 예산은 무역 촉진을 위해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국(ITA)에 5,500만 달러,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산업안전국(BIS)에 5,000만 달러,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검토 요청 증가를 돕기 위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TIC)에 1,240만 달러 증액 포함

* 자료 : 상원 법안 보도자료(12.20), 로이터(12.20)

□ (IPEF) 美 하원, IPEF 도입 시 의회 승인 요구에 동참

- 현지 언론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도 상원 재정 위원회와 더불어 IPEF의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서한을 행정부와 주요 부처에 발송(12.3)한 사실을 확인(12.19)
 - 다만, 현지 언론이 인용한 익명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IPEF 도입에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주장
 -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행정부와 의회 간 대립에 대해 "IPEF의 모든 영역에서 의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공간 내 책임 소재 등 디지털 무역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언급
- 한편, 1차 IPEF 공식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타이 대표는 차기 IPEF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논의가 적었던 노동·환경·디지털을 의제로 선정할 의지 피력

* 자료 : 인사이드트레이드(12.19)

□ [에너지] 美, 전략비축유(SPR) 방출로 40억 달러, 큰 폭의 수입 기록

-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방출 중이던 비축유로 약 40억 달러 이상의 큰 폭의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
 - 미국은 우-러 사태 이후 유가 안정화를 위해 올 4월부터 7번에 걸쳐 2억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였으며, 미국 석유 정제회사, 해외 판매처 등 1억 8,000만 배럴을 판매해 총 4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
 -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SPR은 배럴당 평균 96달러에 판매되었으며, 이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원유 가격(서부텍사스원유 70달러 선)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 미국 정부는 내년 초부터 다시 SPR를 저장해두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매입할 전망
 -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국제 유가와 미국 국내 유가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도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전례 없는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보도

*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12.19)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Lawmakers Boost Military, Domestic Spending in \$1.65 Trillion Omnibus Bill (1.65조 달러 규모 회계연도 2023 예산안 합의) https://www.wsj.com/articles/lawmakers-unveil-a-roughly-1-7-trillion-spending-package-in-race-to-avert-shutdown-11671525969?mod=hp_lead_pos6
The Washington Post	Fierce 'bomb cyclone' to disrupt holiday travel, unleash Arctic outbreak (크리스마스 연휴를 덮친 눈 폭풍,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 예고) https://www.washingtonpost.com/weather/2022/12/20/blizzard-bomb-cyclone-cold-storm/
New York Times	Lawmakers Unveil Sprawling Spending Bill to Avoid Shutdown (섯 다운을 막기 위한 회계연도 2023 극적 합의) https://www.nytimes.com/2022/12/20/us/politics/congress-spending-bill.html
CNN	Here's what's in the \$1.7 trillion federal spending bill (회계연도 2023 예산안 주요 내용) https://www.cnn.com/2022/12/20/politics/spending-bill-congress-omnibus/index.html
USA Today	Pre-Christmas blizzard expected to wallop northern US could strengthen into a bomb cyclone (크리스마스 연휴 주간 눈 폭풍 예고)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22/12/20/pre-christmas-blizzard-bomb-cyclone/10930055002/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12.20(화)	11월 신규 주택 건설 개수 (Housing Start)
12.21(수)	소비자신뢰지수 (Consumer Confidence Index)
12.23(금)	11월 개인소비가치출 (PCE Price Index)
12.23(금)	11월 근원 개인소비가치출 (Core PCE Price Index)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이번주 **금요일(12월 23일)**부터 12월 30일은 **휴재**입니다.

올 한해 U.S. 데일리 브리핑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 더 시의성 있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자료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규정 마련 동향 및 주요내용(US22-46)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및 주요내용(US22-45)

미국 3분기 수출입 실적 분석 및 현지전망(US22-44)

미국 양당 중간선거 공약 주요내용 및 선거결과 전망(US22-43)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발표에따른 경제 전망(US22-42)

미국 바이오 방어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US22-41)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경과 및 우리 수출영향 분석(US22-40)

미국 산업안보국(BIS)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및 현지반응(US22-39)

바이아메리카 정책 후퇴로 본 IRA 전기차 전망(US22-37)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US22-기획4)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US22-기획3)

- (인터뷰) 前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 케빈 울프(12월 12일 업로드 완료)

